

전염되는 어머니 마음

(교황청 일간지 로세르바토르 로마노 , 2014. 9.18 자 게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 겉으로 보기에 고아가 되어버린 이 세상에는 어머니 마음이 퍼져나가기 바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음은 받아들이고 부드러우며 감싸주는 마음을 이 세상에 가져다 줍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고통의 성모 축일을 맞아 산타 마르타 관에서 추기경 자문단과 함께 봉헌한 미사에서 성모님의 어머니 마음과 교회의 어머니 마음을 묵상하면서 만일 그러한 어머니 마음이 없다면 교회는 순전히 “경직된 조직”이 되어버렸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황님은 요한복음 말씀으로 묵상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이 분이 네 어머니시다.” (요한 19,25-27) 라고 하셨습니다. 성모님은 아드님으로부터 두 번째로 ‘여인이시여’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카나에서 “여인이시여,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요한 2,4) 이며, 두 번째는 십자가 아래서 성모님에게 다른 아들을 맡기실 때였습니다. 성모님은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카나의 혼인잔치를 주관하고 계셨으므로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요한 2,5)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때’를 주관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교황님은 “성모님은 ‘여인이시여’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다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분이 지닌 어머니 마음은 십자가 아래에 있던 새로운 아들에게 전해지고, 교회와 모든 사람에게 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모님을 떠올리면 우리는 그분을 어머니로 생각하게 됩니다.

교황님은 이 시대에서 “고아로 버려졌다는 것을 안다” 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요한 14,18) 어머니를 주겠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유산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교황님은 이러한 의미를 잘 이해하도록, 고대 러시아 수도자들이 “영적 혼란을 겪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거룩하신 하느님의 어머니의 망토아래로 피난처를 삼아야 한다.” 라고 하는 그들의 전통을 언급하셨습니다. 교황님의 말씀은 “당신 보호의 품으로 달려드나이다” 라는 라틴어로 된 첫 번째 성모찬송에서도 전해옵니다. 이 기도에는 “우리를 받아들이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어머니” 라는 구절도 들어있습니다.